

게스트하우스 7개 방서 만난 이색 공연

추억의 하모니카 선율로 영·호남 화합 연주

광주·전남 '하모니카 닮은 사람들' 부산·경남 '화음정' 22일 피크뮤직홀 교류회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지역의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추억 어린 선율로 영·호남 화합을 연주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광주·전남 '하모니카 닮은 사람들' (회장 김상복, 지도 김선호)과 부산·경남의 '화음정' (회장 김익환, 지도 김병섭, 이대용)이 22일 오후 5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영호남 하모니카 교류회'를 갖는다. 호남과 영남지방에서 매년 교차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 창원에서 열린 음악회에 이어 5번째를 맞는다.

'하모니카 닮은 사람들'은 2002년 하모니카마을 광주·전남 모임에서 출발, 2015년 현재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재능 기부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

음정'은 부산·경남 지역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일본 간사이 하모니카 연맹 교류회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독주와 합주를 넘나들며 색다른 무대를 선보인다. 레퍼토리는 '유모레스크', '스와니강', '빈대떡신사', '아침이슬', '서울의 찬가', '노들강변', 'Cherry Pink', '여행자', '수선화', '허공', '친구여',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이다. 이채의 시 '당신과 나의 한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낭송, '러시아 민요 메들리', '포스터 메들리' 등 메들리곡 연주도 선보인다. 김유경·김기원·권은·심재복·구자봉·김종철씨 등이 연주한다. 마지막 곡으로 전체 회원이 함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아가씨들'을 연주하며 막을 내린다. cafe.daum.net/harmonica-yh. 문의 010-3635-226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기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 리뷰

5·18관련 '감각의 방' 등 눈길 공연 후 생각할 거리 많이 남겨 인상적 정해진 등선언어 전 작품 못봐 아쉬움

'관객과 하나 되는 공연'이란 캐치프레이즈는 꽤나 흔히 보이는 문구지만, 간단한 질문을 건네거나 관객을 무대로 초대하는 것 이상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최근 무대·객석 구분이 없는 좁은 방에서 공연하고, 관객과 배우가 함께 연기하며 보다 근본적 의미에서 '하나 되기'를 시도한 공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극단 열·아리가 펼치는 공연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남구 양림동 '아리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관객 역(役)을 공모한다'는 콘셉트로 눈길을 끌었던 이 공연은 참가 신청한 관객 중 선발된 20명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관객끼리 4명씩 짝지어 게스트하우스 7개 방 곳곳에 준비된 공연을 찾아다니며 진행된 이날 공연은 연극, 무용, 음악 콘서트, 전시 미술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관람객을 맞았다.

1층 로비에서 '어쩌면', '이야기' 등 각 모듈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받고 지하 1층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곧이어 익살스런 연기로 공연장 무대 매너를 설명하는 짧은 연극 '그렇습니다'를 선보이며 관객의 자원을 받아 등장인물로 출연시키는 등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환기시켰다.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특별한 순서 없이 내키는 대로 공연을 찾아다녔다. 5·18과 관련된 콘텐츠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2층 복도 가장 안쪽 방에 준비된 '고장난 시계' 공연과 3층에서 진행되는 '감각의 방'. 80년 당시 자식들을 잃은 트라우마를 가진 할머니(고나영 배우)를 주제로 펼치는 '고장난 시계'는 관객에게 아들, 딸, 기차, 요양원 직원 등의 역할을 정해 진행되며,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면 차츰 자신의 배역을 깨닫게 되는 형식으로 꾸며졌다. '감각의 방' (정경아 배우)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 진행되는 체험극이다. 5·18 최후의 항쟁 당시 박영순씨의 연설과 난무하는 총성,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침대에 누워 가만히 듣다 보니 80년 그 날의 현장에서 집에 누워 잠을 청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4층에선 음악 공연 '음악과 독백'이 마련됐다. '오랫



아리네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된 공연 '어쩌면 스무 개의 이야기' 중 연극 '광주 리어의 자식들'.



'고장난 시계'

이 혼자 섬'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 무명 가수 임장숙씨는 관객에게도 아픈 과거나 앞으로의 다짐 등 저마다의 사연이 담긴 이름을 만들게 해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지영 배우의 '나의 이야기'는 입구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야만 관람할 수 있는 공연이다. 잠금 장치를 풀자 세파란 조명으로 가득 찬 방 안 늘어선 4개의 관이 눈에 들어오며 으스스하고 꺼림칙한 분위기를 풍겼다. 공포 체험관같은 첫인상과 달리, 좁은 관에 누워 무명천을 덮고 나면, 유 배우의 최면을 거는 듯한 대사와 함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두 대의 침대에 각자 누워 육신간 말싸움이 한창인 남매의 대화로 취업난, 예술계의 좁은 입지 등 청년들의 현실을 짚는 안운국·노은지 배우의 연극 '광주 리어의 자식들', 가구를 사라 온 손님 입장이 돼 판매원의 언변에 휩쓸리는 '중고 침대'도 이어졌다. 옥상에서는 역동적인 무용수의 몸놀림과 그 뒤로 보이는 고요한 밤의 골목이 대조되며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바쿠리 무용수의 무대가 펼쳐졌다.

모든 순서가 끝나면 1층에 모여 각자 공연에서 느낀 바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 '힘내서 집에 가자', '내 자신이 참 예쁘다' 등 다채로운 20개의 글씨가 만들어졌다.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둠으로 묶어 서먹했던 관객들도 어느새 들떠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쉬운 점은 정해진 동선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시간 분배가 잘못돼 7개 방을 모두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관객이 공연을 관람 중일 땐 방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이 지루해지는 점도 아쉬웠다. 공연장 곳곳에 설치된 고추장자리 등 미술 작품을 돌아볼 여유도 부족했다. 각 공연의 콘셉트가 개성이 강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을 찾아온 이나영(36·양림동)씨는 "집 근처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공연장이 아닌 게스트하우스에서 공연을 하니 새로웠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연결고리를 만들고, 공연이 끝나고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관람객 배수빈(35·주월동)씨는 "특히 '광주 리어의 자식들' 공연에서 투정부리고, 놀리다가도 서로를 걱정하는 남매의 모습이 크게 공감돼 기억에 남는다. 또 피아노 공연에서 일상에 지친 스스로를 표현하는 기회가 돼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극단 열·아리는 오는 7월15일부터 9월23일, 10월21일, 11월18일에 다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https://bit.ly/2Hx7VR5>)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특별한 사연을 함께 알려주면 추첨을 통해 무료 숙박권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공연. 문의 010-2659-6998.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불교 육식 금지는 '능가경'서 시작"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세미나 함형석 전남대 교수 주장

초기 불교에서는 육류 섭취를 허락했으나 능가경(대승불교의 철학강론)을 중심으로 한 승가세력에 의해 불교가 육식을 금지하게 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전남대학교 호남불교문화연구소(소장 조윤호 교수)가 19일 인문대 1호관 현공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1회 클로키움에서 발표됐다.

이 콜로키움에서 함형석 교수(전남대 철학과)는 '육식의 기억을 조작하기-능가경은 어떻게 불교에 채식주의를 도입하였는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능가경의 여덟번째 품인 '불-육식에 관한 쟁터'(斷食肉品단식육품)는 육식을 비난하고 불교도의 육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조건적인 육식을 허용하는 초기 불교도들의 육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함 교수는 인도불교에서 채식주의는 특정한 불교 교리의 표현이 아니라 불교 외부 세력의 압박 속에서 도입됐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이러한 압박을 수용한 능가경이 어떻게 육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했는지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승가가 지켜야 할 계율 등을 담은 '율장'에서는 세 가지 점에서 '정정한 육류'의 섭취를 허락하는데, 경전의 하나인 '능가경'에서는 육류가 '정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살생의 세 가지 양상으로 바꾸어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규칙을 어떠한 형태의 육식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능가경'에서는 채식주의에 반대하는 미래의 불교도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한 뒤, 그들을 이교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불교도들이 육식을 할 수 있는 과거의 근거는 물론 미래의 가능성까지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062-530-323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오늘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 특별강연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중국 자주요 도자 명품전-흑백의 향연' (8월18일까지) 연계 특별강연회를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김영원 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이

'중국 도자기의 역사와 자주요'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김 전 관장은 중국 도자기의 8천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중국 도자사 안에서 자주요 도자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명할 예정이다.

김 전 관장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

앙박물관 미술부장,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도자사 연구 전문가로 꼽힌다.

한편 오는 26일과 7월 31일 오후 2시 30분에는 교육관 대강당에서 전시해설 '큐레이터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7월 5일 오후 1시에는 '한·중·일 분장자기의 현황과 분석'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열린다. 문의 062-570-703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클로버 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닭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헬스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 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증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팩트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으뜸공인증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교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